

“하늘 같은 부모님 은혜 고맙습니다”

해남군, 어버이날 기념 표창패 수여식 등 개최
와병중 노모 10년째 봉양 명재국씨 도지사 표창

해남군은 최근 군청 대회의실에서 어버이날을 기념해 100여명의 군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53회 어버이날 기념 표창패 수여식을 가졌다고 11일 밝혔다.

해남군 지역아동센터 어린이들로 구성된 제이스트림 오케스트라의 현악 합주 공연으로 막을 열은 기념식에서는 경로효친 사상 실전을 바탕으로 부모를 정성으로 봉양하고 자녀를 훌륭하게 키운 국가와 사회발전에 기여한 효행자와 장한아버지 25명에 대해 표창패가 수여됐다.

도지사 표창 효행자 분야에는 해남 명재국씨(71)에게 표창패가 수여됐다.

명재국씨는 차매로 와병중인 노모를 10년째 지극정성으로 돌보면서 집에서 직접 모시고 있어 주변의 감동을 사고 있다. 이번 표창도 명씨의 이러한 사연을 안 직장동료들과 이웃들의 적극적인 추천으로 이뤄졌다.

또 군수 표창 장한아버지 분야로 해남을 박종희(61)·민미경(60) 부부, 삼산면 박계수(81)·윤순란(70) 부부, 화산면 김장균(70)·노정심(74) 부부, 현산면 박화순(89), 송지면 최동수(76)·박정금(73) 부부, 북평면 이순신(73)·차점순(68) 부부, 북일면 조절용씨(61), 옥전면 서화석(78)·최세운(75) 부부, 계곡면 김경구(67)·오형미(65) 부부, 마산면 김장욱(71)·이영숙



해남군은 최근 군청 대회의실에서 어버이날을 기념해 100여명의 군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53회 어버이날 기념 표창패 수여식을 가졌다.

(62) 부부, 황산면 이광열씨(77), 산이면 이미숙씨(62·여), 문내면 이영(84)·허복임(78) 부부, 화원면 김정옥(75)·장영(69) 부부가 수상했다.

명현관 군수는 “어버이날을 맞아 한평생 자녀와 가정을 위해 묵묵히 헌신해 오신 부모님의 삶은 우리 모두에게 본보기가 됐다”며 “그분들의 희생과 헌신이 있었기에 오늘의 해남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행사가 부모님의 깊은 은혜와 효의 의미를 다시금 되새기는 하루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행사와 별도로 해남을 박전복씨(72·여)가 자녀에 대한 헌신적인 사랑을 바탕으로 한평생 희생적인 삶을 살아온 공적을 인정받아 대통령 표창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으며, 서울 백범 김구기념관에서 포상을 수여받았다.

해남=성정수 기자 sjs8239@gwangnam.co.kr

PEOPLE

2025년 5월 12일 월요일



광주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역량 강화 교육

광주 북구의회는 최근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해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행정사무감사의 전문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지방의회 분야 전문가인 박순종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교수가 강사로 나서 행정사무감사의 목적과 절차, 효과적인 질의기법과 우수 사례 등 실무 중심의 강의를 진행했다.

특히 실제 사례분석을 통해 감사 과정에서 마주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 상황과 그에 대한 대응 전략을 학습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으며, 열띤 질의응답으로 감사 역량을 한층 높였다.

최무송 북구의회 의장은 “행정사무감사는 구민을 대신해 의회가 집행기관을 감시·견제하는 매우 중요한 활동이다”며 “이번 교육으로 의원들의 전문성과 분석력이 더욱 강화돼 보다 내실 있는 감사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신하 기자 goback@gwangnam.co.kr



광주 동구의회-화순군의회 고향사랑기부금 상생 협력 강화

광주 동구의회와 화순군의회는 최근 화순군의회에서 고향사랑기부금 200만원을 상호 기부하며 지역 발전을 위한 협력 의지를 다졌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상호 기부는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한 연대를 바탕으로 두 지역이 동반자로서의 유대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들은 앞서 지난해 6월19일 인구 감소와 지방소멸 위기에 공동 대응하고 지속 가능한 생활인구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상생발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문선화 동구의장은 “이번 상호 기부를 계기로 광주 동구와 화순군이 지방소멸 위기를 함께 극복하고, 지역 간 상생 발전을 이룰수 있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송태영 기자 sty1235@gwangnam.co.kr

화순=구영규 기자 vip3355@gwangnam.co.kr



지난 10일 라마다플라자광주 5층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광주송일고 제34회 동창회 졸업 40주년 기념식'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광주송일고 34회 동창회, 졸업 40주년 기념식

희망찬 미래 다짐...이경보 총동창회장 “우정 돈독히 하는 계기”

117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호남 최고의 사학인 광주송일고등학교 제34회 (회장 장철 통일교역 대표이사) 동창생들이 졸업 40주년을 맞아 '전통의 숭일, 추억의 40년, 희망찬 미래'를 주제로 10일 광주 서구 치평동 라마다플라자호텔에서 기념식을 가졌다.

행사에는 모교 박희복 교장과 이경보 광주 송일중·고등학교총동창회장, 정성윤 재경 송일동창회 부회장 등 각계 인사들도 다수 참석해 뜻깊은 자리를 축하했다.

전국에서 한 자리에 모인 34회 동창생들은 그동안 교류를 가졌던 이들도 일부 있지만, 대다수가 30~40년만에 처음 얼굴을 마주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만남을 통해 10대 소년으로 되돌아가 학창시절을 추억하고, 서로의 안부를 묻으며 재회의 기쁨을 누렸다.

장철 34회 동창회장은 개회사에서 “교정에서 함께 뛰놀던 때가 엇그제 같은데 어느덧 40년의 세월이 흘렀다”면서 “100세 시대를 맞아 앞으로 40년은 새로운 인생 2막을 열어나가자”고 다짐했다.

이경보 광주송일 총동창회장도 축사를 통해 “1980년대 격변의 시기에 사회로 나가 그동안 각 계각층에서 열심히 살아온 회원들의 노고를 치하한다”면서 “뜻깊은 자리를 통해 재회의 기쁨을 누리고, 40여년간 쌓아온 우정을 더욱 돈독히 하는 계기로 삼아달라”고 당부했다.

박희복 교장은 “여러분이 있었기에 오늘의 명문 송일이 있을 수 있었다”면서 “어디에서 무엇을 하던지 항상 송일을 기억하면서 영원한 '송일인'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재경 송일동창회 정성윤 부회장은 “송일은 우리고, 우리는 송일이다. 영원한 송일을 위해서 우리 선배님들이 그랬듯이 우리 선배를 존경하고, 동료 를 사랑하고, 후배를 아껴야 한다. 이것이 송일의 정신이다”고 강조했다.

한편 광주송일고는 1907년 미국 배유지 목사가 최초 설립한 기독교 미션스쿨로 교훈은 믿음, 소망, 사랑이다. 현재 광주광역시 북구 일곡동에 위치하고 있으며 사립 남녀공학 일반계 명문 고등학교다.

이신하 기자 goback@gwangnam.co.kr



광주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은 최근 임직원들과 함께 국립5·18민주묘지를 참배하고 '다시 만난 오월, 광주는 동사(ing)입니다'라는 주제 아래 오월 정신을 현재형으로 실천해 나갈 것을 다짐했다.

“다시 만난 오월, 광주는 동사(ing)입니다”

광주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 5·18정신 실천 공공기관 다짐

광주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대표이사 김현성)은 최근 임직원들과 함께 국립5·18민주묘지를 참배하고 '다시 만난 오월, 광주는 동사(ing)입니다'라는 주제 아래 오월 정신을 현재형으로 실천해 나갈 것을 다짐했다.

이번 참배는 5·18 민주화운동 45주년을 맞아 희생과 연대, 그리고 민주주의의 가치를 되새기고, 지역 사회와 함께 행동하며 살아 숨 쉬는 공공기관으로서의 사명을 확인하는 자리였다. 임직원들은 묵념과 헌화, 분향을 통해 오월 영령의 뜻을 기리며 '기억하고, 실천하고, 연대하는' 광주의 정신을 공유했다.

김현성 대표는 “오월 정신은 과거에 머무는 명사가 아니라, 지금도 우리 사회 곳곳에서 실현돼야 할 동사입니다”라며 “광주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은 청년과 시민의 삶을 바꾸는 상생 일자리 정책을 통해, 오월 정신을 ‘행동’으로 옮기며 시대적 책무를 다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광주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은 광주시를 대표하는 일자리 중추기관으로서, 청년 취업 지원, 인재-기업 매칭, 소상공인의 디지털 - 1 전환 등 지역 특성에 맞춘 다양한 일자리 사업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다.

장승기 기자 sky@gwangnam.co.kr

전남도, 5월 임업인에 한운섭 이사 선정

고흥서 취나물 생산·소득향상 노력

전남도는 5월의 임업인으로 고흥 도화면에서 취나물을 생산해 출하하는 한운섭 고흥취나물웰빙영농조합법인 이사를 선정했다고 11일 밝혔다.

한운섭 이사는 2007년부터 고흥취나물웰빙영농조합법인에서 근무하며 32개의 취나물 생산 임가를 관리하고, 170ha의 면적에서 연간 8000t의 취나물을 생산·제품화하며, 2024년 한 해 75억원



의 수익을 창출했다.

한 이사는 소포장 기술 및 냉동진공포장 방식을 도입해 제품의 가격경쟁력을 확보했다. 한운섭 이사는 “취나물은 단순 나물이 아니라 자연과 건강을 담은 프리미엄 식재료다”며 “다양한 유통 경로를 통해 소비자가 더 쉽게 고흥 취나물을 접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정렬 기자 holbu@gwangnam.co.kr

게시판

알림
▲사회공헌활동 기부은행 돌봄봉사자=어르신 돌봄봉사자 모집, 13세 이상 가능, 동구노인종합복지관, 문의 062-232-4953.
▲광주시노인보호전문기관24시간 노인학대 상담, 학대피해노인전용센터, 노인학대 신고=노인학대를 당하고 계신 분, 목격하거나 알게된 분들 망설이지 마시고 노인보호전문기관으로 연락주세요. 연중무휴, 24시간 전화상담 문의 1577-1389.
▲마약류 오남용 및 중독 상담=마약류 오남용 및 중독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과 가족을 대상 무료 상담 진행.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광주지부 함께한결을센터, 문의 062-374-2818.
▲비영리민간단체 노후를 돕는 사람들 노후생애를 위한 무료교육=50세 이상 중장년층 남녀 15기 모집 주 3일(월·

수·금) 1일 2시간씩 6개월간 진행, 영어, 심리상담, 생애 설계, 노래, 댄스, 명심보감 등 진행, 062-223-1357.
모집
▲광주 북구 여성인력개발센터 글쓰기교실=글쓰기 기초를 통해 심리치료를 하는 동시에 자신을 만나는 시간, 매주 화요일 오후 7시부터 9시까지, 문의 062-266-8500.
▲아동일시보호 상담=미혼부모아동·결혼가정아동·경제적 사정·아동 학대 등 양육환경에 어려움 있는 3세 미만의 아동들이 안정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입소 상담, 광주영아일시보호소, 문의 062-222-1095·1096.
▲신창동 보은사 목련합창단 단원=성악 또는 찬불가 배우기에 관심있는 일반인, 매주 수요일 오후 1시 정기연습, 신창동 대광로제비앙아파트 후문 80m, 문의 010-4622-7838.

운세 (음력 4월 15일)

쥐
48년생 지나치니 없이 정도를 지켜라
60년생 문서에 미련을 갖지 말 것
72년생 말을 잘못 사용하면 부패량이 된다
84년생 원하던 일이 있다면 실천하라
96년생 방법을 달리하다보면 좋은 결과
토끼
51년생 집을 지키는 것이 좋겠다
63년생 거래처 모이고 금전이 생긴다
75년생 순식간에 상황이 바뀔 수도 있다
87년생 구제성이 요구된다
99년생 친구 일에 동조하지 말라
말
54년생 떠난 것에 미련을 갖지 말 것
66년생 행운의 별이 비춰오고 있다
78년생 돈의 운용에 따라서 길흉이 좌우된다
90년생 직장에 열중 하라
돼지
57년생 재산에 미련을 가지지 말 것이라.
69년생 신중해야만 정확히 대처할 수 있다
81년생 소원했던 관계가 회복된다
93년생 마음을 알지 못하고 있다

소
49년생 부동산 거래는 안 되니 단념하라
61년생 출장을 삼가는 것이 좋다
73년생 흥정을 잘 붙인다면 사세가 따른다
85년생 거래는 이뤄지기 어렵다
97년생 지인으로 인한 구설수를 조심하라
송
52년생 직접 모색하는 것이 좋겠다
64년생 수고로운 일이 다가오고 있다
76년생 재물(송진)을 얻는 길함이 있도다
88년생 사람의 의견을 받아들이도록 하라
양
55년생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인다
67년생 더 큰 규모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79년생 직감과 예감 빠르니 즐거운 하루
91년생 고정관념을 버릴 때 창의성 발휘된다
개
58년생 지나친 문서 욕심은 화를 부른다
70년생 3자로 인해 일이 호황을 맞는다
82년생 시댁이 도우니 유리하게 될 것
94년생 헛된 욕심을 버려야 한다



강은주 교수의 사주·풍수·작명

호랑이
50년생 제3자 말로 인하여 화를 부른다
62년생 문서를 주고받을 좋은 운
74년생 미래를 위한 투자로 봐야 할 것
86년생 궁극적인 목표에 도달하는 날
98년생 현재 당면한 일부터 처리함이 맞다
뱀
53년생 내키지 않는다면 미련없이 철회하라
65년생 미룰 수 있는 여행이라면 미루라
77년생 영향을 받을 만한 일이 벌어지겠다
89년생 일이 많아지니 마음은 편안하다
원숭이
56년생 마음의 병은 오래간다
68년생 부동산 거래가 아니니 물러서라
80년생 부주의로 인해 금전 나가는 운
92년생 뜻이 맞지 않아 마음이 조금씩 진다
돼지
59년생 노력에 비해 얻는 게 적다
71년생 재물이 들어오는 운세
83년생 시련한 결말은 없고 자주 연기되리라
95년생 늦지 않았다 배워두고 보라

편집기자	
데스크	
당직자	